

2016년 12월 7일, 남원읍 태흥3리 오봉남씨 댁, 김선희 조사.

제보자1: 오봉남(남, 1922년생, 남원읍 태흥3리)

제보자2: 오명옥(남, 1934년생, 남원읍 태흥3리)

[제보자2] 소곰뽕 예염이 기신새에 귀신 나오라났젠 안 험니까? 옛날.

[제보자1] 아니 귀신대는 아니고 그저 살아온 모냥 헛게마냥 그것가 옛날은 잊지이.

[조사자] 아, 예.

[제보자1] 헛불, 헛불하고 헛게.

[제보자2] 귀신, 귀신.

[제보자1] 응, 귀신, 그런...

[제보자2] 아무래도 도체비보다는 그 헛게가 조금 높은 귀신인 거 닮아.

[제보자1] 그런 거 잊었다 허는디.

[제보자2] 이렇게 다리 벌려서 사났다고 해.

[제보자1] 그건 바로 귀신대. 큰 거고.

[제보자2] 귀신대게. 건디 나 믿어지질 안 헤여.

[조사자] 귀신대 골아줍서.

[제보자1] 우린 그런 거 안 봐난.

[제보자2] 봐나지도 안 허고.

[제보자1] 저, 태흥리 강 놀당 밤. 그때가 이월달이라. 음력으로 이월달. 이월달인디, 이월 초승인디. 강 놀다가 비 축축하게 오라가고 헤연, 비 오라난 집이 오젠 허니까 누웠당 널랑 가렌 해도 오젠 오는디 그디 오니까, 막 그 저 사람들 놀래 부르는 소리, 어린아이는 막 우는 소리가 나. 이게 또 뽕인고 행, 이제 7만히 왕 들었어. 알아지는 사람 노래도 똑 닮고. 다 모르는 사람 노래. 애기 우는 소리 막 나곡. 예예, 와 분데 왔는디. 다음 날은 언치낙 영영 뽕기당 이상헌 소리 나. 어, 자꾸 그런 소리 나와 헤여.

[조사자] 그게 헛게소리인가마썸?

[제보자1] 예. 예. 그것?라 헛소리 헛소리엔 허여. 그디 그 외론 난 아이 봐난. 딴 사람들은 도망가나노라 해도 나는 원 아니 봐난.

[제보자2] 나도 글로 다녀도 안 봐난.

[조사자] 그 소곰밭 옆으로예?

[제보자2] 응.

[제보자1] 귀신대엔 헛 거, 아까 이영 헛 거 귀신대엔 헛 건디.

[조사자] 팔 벌리고 다리 영 벌린 거마썸?

[제보자2] 다리를 영 벌렸다고 이 밑으로 지나치면.

[제보자1] 넘어가민.

[제보자2] 지나가면은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.

[제보자1] 글로 넘어가민 사흘 내에 죽엇젠 헤여.

[제보자2] 이렇게 다릴 벌렁 잇지. 게난 그 밑으로.

- 핵심어 : 소곰밭, 기신새, 귀신대, 헛게, 헛불, 귀신, 도체비, 노래 부르는 소리, 아이 우는 소리, 다리 벌리기, 사흘 내에 죽음